

농촌진흥청, 잇들개 ‘새봄’ 양액재배 현장 평가회 열어

- 고체배지 양액재배로 노동 강도 줄이고 연작장해 차단
- 기존 흙 재배 대비 수확량·농가 소득 약 30% 증대 확인
- 양액재배 적합 ‘새봄’, 농가 만족도 높이고 보급 가속화

※ 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3:30 ~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10월 29일 경상남도 밀양시 시범 농가에서 잇들개 품종 ‘새봄’ 양액(수경)재배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잇들개 흙 재배(토경) 시 발생하는 연작장해와 과도한 노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재배 농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추진한 양액재배 기술을 검증하고 ‘새봄’ 품종의 생육 특성과 농가 소득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잇들개 양액재배 베드 설치



‘새봄’ 양액재배 생육 모습



잇들개 양액재배는 무릎 높이의 베드에 고체배지(필라이트 등)를 채우고 점적관수로 물과 양분을 정밀 제어하는 방식이다. 토양으로 전염되는 병해충과 비료 성분 축적 문제를 차단해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지 않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어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 절감 효과가 크다.

‘새봄’(2020년 개발)은 잎이 두꺼워 저장성이 좋고 속잎 성장 속도가 빠

르다. 특히 잎이 적정 크기 이상 커지지 않아, 농가 상황에 맞춰 수확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수확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어 여름철 흙 재배는 물론 생육 속도가 빠른 양액재배에도 적합한 품종이다.

또한, 양액재배 시 잎이 두껍게 자라 저장성이 좋고* 잎 무게도 많이 나가 중량 단위 포장 출하 시 유리하다. 아울러 정밀 양액 조절 기술로 잎이 천천히 자라는 특성을 보완하고 속잎 성장 속도를 촉진하면, 다음 수확까지의 기간을 2~3일 앞당길 수 있다.

* 꼭지 갈변(0~4): (흙재배) 2 (양액재배) 1 / 물러짐(0~4): (흙재배) 3 (양액재배) 1

시범 농가 현장 실증 결과, 수확량은 10아르(a)당 6,700kg으로 기존 흙재배(5,200kg)보다 약 30% 많았고, 소득은 10아르당 약 2,200만 원으로 기존(1,700만 원)보다 약 30%(500만 원) 많았다*. 같은 양액재배 조건에서는 기존 주요 품종인 ‘남천’보다 잎 무게가 약 10% 늘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수확 기준

‘새봄’ 종자는 2027년 3월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광장’ 누리집 (www.seedplaza.or.kr)에서 개별 신청 및 구매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발작물개발과 고지연 부장은 “잎들개 ‘새봄’과 맞춤형 양액재배 기술의 결합은 일손 부족 해소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이라며 “현장 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잎들개 품종 ‘새봄’ 양액재배(수경) 현장 평가회 계획(안)
2. 잎들개 ‘새봄’ 품종 특성

담당 부서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과	책임자	과 장	고종민 (055-350-1210)
		담당자	연구사	김정인 (055-350-1228)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5200)
		담당자	지도사	전수연 (063-238-5223)
<div><div>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div><div>농업의 모든 것</div><div>농사로</div></div> 				

□ 농촌진흥청 잎들깨 수경재배 신기술 보급사업 현황

-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24~'26)
 - 사업비 : 개소당 20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 '경남 밀양' 등 총 13개소 ('24) 7개소 → ('25) 3개소 → ('26) 3개소
- 핵심 사업 내용
 - 수경재배를 위한 베드 및 양액시설 구축, 식량원 개발 수경재배 적합 신품종 잎들깨 '새봄'('20), '소미랑'('19) 재배

□ 수경재배 도입 농가 현장 실증 결과 ('25.9.~'26.4. 잎 수확 기준)

- '새봄'의 수경, 토경재배 시 잎 수확량과 소득 비교

잎 수확량(kg/10a)			소득(만원)		
수경재배	토경재배	증가비율(%)	수경재배	토경재배	증가비율(%)
6,700	5,200	28.9	2,200	1,700	29.4

- 수경재배 시 '새봄'과 '남천들깨'의 잎수확량과 상품잎당 속잎비율 비교

품 종 명	잎수확량(kg/10a)	수량지수	상품잎당 속잎비율(%)
새봄	6,700	110	46.6
남천들깨	6,100	100	43.7

□ '새봄' 수경재배 시 생육



잎이 두껍고 속잎이 잘 자라는 잎들깨 '새봄'

연구 배경

전국 재배면적: 약 1,157ha

887

2015

1,157

2025

2025년 기준 경남 밀양, 충남 금산이 전국 60% 재배면적 차지

기존 품종(남천, 잎들깨1호) 단점 보완 필요

- ✓ 밀양, 금산지역 여름재배의 약 70% 재배
- ✓ 최대한으로 큰 잎의 크기가 크고 속잎이 잘 크지 않음
- ✓ 잎 두께가 얇아 저장성이 낮음
- ✓ 수경재배에도 적합한 품종 필요

품종 특성

여름 토경재배, 수경재배 적합 품종

〈새봄〉 2020년 개발 품종

- ✓ 최대한으로 큰 잎이 길이가 작아(13.1cm) 상품성이 좋고 잎수확 노동력 분산

상품잎 수확 시 속잎이 잘 자람

노동력 우수

동근심장형, 잎이 두껍고 잎 크기 작음

상품성, 저장성 우수

남천들깨 새봄

- 종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 성숙기는 10월 25일임(남천대비 약 6~7일 빠름)
- 엽 수량성이(잎무게) 남천 대비 10% 증수함

재배 시 주의 사항

- 기존 품종들에 비해 잎 수확 시 줄기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 **떡잎 및 3본엽까지** 주의를 요함
- 여름 토경 재배 시 **수분과 비료**를 남천에 비해 많이 필요함
- 시설 재배 시 전국 재배가 가능하나, 노지 재배 시 개화기(9월 하순) 이후 품질이 떨어질 수 있음

종자 보급

기존: 농가 간 계약재배

향후: 종자생산기관 보급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한 잎들깨 품종 최초 '새봄' 품종 보급 중
- » 보급량(t): ('23) 1.3 → ('24) 1.5 → ('25) 1.5 → ('26) 1.5
- 농진원 '종자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농가 개별 신청 주문 가능
- (종자 보증) 채종단지 포장 검사, 발아율 및 순도 검사